

情報提供의 現况과 展望

KORSTIC 文獻部長 千熙星

一. 序論
二. 情報需要
1) 情報市場
2) 情報의 必要性
三. 情報提供現況
1) 一般的인 現況
2) KORSTIC 提供現況
四. 展望

一. 序論

提供은 需要를 前提로 한다. 따라서 提供은 一方의 일 수 없다. 情報提供에도 同一한 論理가 成立된다. 情報提供의 効率化는 提供과 需要의 兩側面에서 取扱되어야 한다. 提供과 需要의 어느一方이라도 不滿足스러운 狀態에 있다면 情報提供業務의 極大化를 期할 수는 無을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情報提供의 設定도 科學的인 統計위에 根據를 갖는 理論的인 基礎에서 摸索되어야 한다. 따라서 情報需要者 側面을 綿密하게 科學적으로 分析 檢討한 結果를 中心으로 綜合된 立場에서 情報提供業務의 規模와 方法이 決定되어야 하는 것이 當然한 論理가 될 것이다.

設定은 理想의으로 되기 쉽다. 때문에 設定時에 看過에서는 안될 問題는 提供遂行能力에 關한 正確한 評價이다. 이렇게 生覺하면 情報提供의 網羅性, 遂行能力, 需要者 慾求充足 이라는 三點에서 發見되는 最大公約數의인 立場에서 設定이 決定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會 것이다.

KORSTIC이 提供業務를 始作한 以來前述한 바 있는 設定下에서 提供業務를 行하여 왔다. 그러나 需要者 慾求를 보다 積極적으로 充足시켜야 할 立場에서 本身 情報處理 및 提供에 있어서 改善되어야 할 點이 展開되어 있다. 具體的인 改善方法에 關하여는 論外하고 本題에 不完全하지만 어떤 統計를 基礎로 하여 KORSTIC의 情報提供의 展望을 論하고자 한다.

二. 情報需要

1) 情報市場

무엇을 必要로 하는 者의 集團은 市場을 形成한다. 情報市場이라 함은 情報를 必要로 하는 者의 集團이다. 이 集團은 情報를 必要로 하는데 있어서는 同質의 인要素를 所有하면서 位置的으로는 分散된 狀態에 있다.

情報市場은 情報의 市場性을 갖는다. 情報提供은 市場性을 度外視할 수 없다. 情報市場性은 情報를 必要로 하는 者들의 情報需要에 따라 情報의 質·量 및 方向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런 市場性을 正確히 把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特히 注意해야 할 것은 市場性은 恒常 流動의이라는 點이다.

2) 情報의 必要性

情報의 必要性이 強하면 強할수록 情報를入手코 하는 行爲는 積極化된다. 따라서 情報必要性에 關한 認識의 高低가 情報提供量을 決定한다고 볼 수 있다.

研究者는 情報必要性을 認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形態로 얼마나 한 깊이로 認識하고 있는가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單純하게는 다음과 같이 區分될 수 있다.

- (1) 極히 必要로 한다.
- (2) 必要로 한다.
- (3) 必要로 할것이다

위에서 指摘한 (2)와 (3)은 「研究와 產業이 循環發展하는 過程」에서 「極히 必要로 한다」의 部分으로 吸收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研究人口가 急增하면 集團의 幅은 넓어지면서 認識度가 强하여 점에 따라 情報入手行爲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情報必要性에 關한 認識과 集團의 幅이 情報提供의 規模를 決定하게 된다.

三. 情報提供 現況

1) 一般的인 現況

情報의 重要性과 情報活動의 經濟性에 關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研究者를 비롯하여 政策樹立者에 이르기 까지 어느 누구도 否定하는 者는 없다. 그러나 否定의 아니라는것이 곧 積極的인 것이라는 意義를

갖는 것은 아니다. 但只, 極端的으로 表現하면 「重要한 것이겠지」하는 程度의 部分이 크다고 生覺된다. 우리는 오늘에 滿足하려는 安易한 思考方式에서 脫皮하고 보다 創意的이어야 하겠다. 研究者의 財政的 및 施設的인 諸條件이 改善되어 情報流通過程이 合理的으로組織되어야 하겠다. 特히 近視的인 利潤追求에만 사로잡히기 쉬운 經營者들의 情報活動에 關한 理解不足은 하루速히 解消되어야 하겠다.

2) KORSTIC提供現況

KORSTIC의 情報提供을 1963年 및 1964年을 中心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複寫提供

- | | | |
|-----------|--------|--------|
| a. 1963年度 | 複寫提供件數 | 1,200件 |
| | 利用處數 | 124個處 |
| b. 1964年度 | 複寫提供件數 | 4,800件 |
| | 利用處數 | 660個處 |

上記의 複寫提供件數 및 利用處數에서 먼저 1964年 度分을 分析하여 보면 660個處에 對한 4,800件은 1個處當約 7.3件이 된다. 그러나 660個處를 利用者의 年間 累計 이므로 同一個處의 年間 重複利用率을 3回로 보면 1964年度의 純年間利用處 總數는 220個處 ($\frac{660個處}{3回}$)로 推算할 수 있다. 따라서 年間 一個處當 複寫提供件數는 約 21.8件 ($\frac{4,800件}{220個處}$)이 된다. 여기에서 1963年度의 利用者數量 62個處 ($\frac{124個處}{2個}$)로 보면 一個處當 年間 複寫提供件數는 約 19.4件이 된다.

위에서 1963年度와 1964年度를 對比하여 보면 複寫利用處數는 62個處에서 220個處로 約 3.5倍가 增加하였고, 複寫提供件數 또한 1,200件에서 4,800件으로 4倍가 增加하였다. 뿐만 아니라 一個處當 年間 複寫提供件數도 2.4件 程度가 增加하고 있다.

(2)速報提供 및 其他

文獻速報 및 特許速報의 購讀者數는 1963年度의 60個處에서 1964年度의 125個處로 約 倍增하고 있으며, 主題調查, 翻譯 및 Contents Sheet Service도 緩慢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

四. 展望

情報提供은 情報의 市場性을 度外視할 수 없다고前述한바 있다. 2年間의 KORSTIC 提供業務를 通하여 情報利用者 및 複寫提供件數等을 分析하여 본 結果 全體的으로相當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程度의 規模를 갖는 情報市場이 存在한다는 것을 뜻한다.

情報流通의 活潑化를 期하는데 있어서 提供과 需要의兩側面을 같이改善해야 될 點을 簡略하게 指摘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提供面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迅速하게 解決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의 情報需要를 어느 程度 網羅할 수 있으리라고 推算되는 3千種의 第1次情報資料를 蒐集할 것.

(2) 情報需要者의 立場에서 有効情報의 判断이容易하도록 情報處理를 改善 發展시킬 것.

以外에도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으나 가장 基本的인 上記 두 가지 問題만이라도 어느 程度 達成된다면 實際의 情報市場은 容易하게 擴大될 것으로 生覺된다.

다음 需要者의 側面에서는 自體內에서 自發的인 情報活動의 積極化를 期하면서 KORSTIC發展에 보다 協助的이어야 하겠다.

以上 情報提供의 現況과 展望을 概觀하였으나 KORSTIC은 보다 能動的인 面에서 情報活動에 關한 P.R.을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繼續하려고 한다.

(1) P.R. 方法

- 情報活動의 大衆的인 普及을 目標로 新聞, 텔레비전, 其他的 Mass Media를 繼續的으로 最大限 利用.
- 情報市場의 構成員 名單을 作成하여 繼續的인 業務案內書 送付.
- 重點的으로 選定된 情報需要者에 對한 Repeat Call.
- 學・協會의 研究發表會等에의 參席과 其他 Man To Man 式 P.R. 및 双務的인 方法 等.

(2) (1)의 a~d까지의 方法으로 現在 KORSTIC의 業務部가 中心이 되어 P.R.을 行하고 있으나 b에該當되는 部分을 更具體的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P.R對象處 地方 計備 考

A. 1) 大學圖書館數	37	34	71	1964年 韓國教育年鑑(p. 381) 및 韓國의 圖書館(p. 14)
2) 特殊圖書館數	38	7	45	1964年 韓國의 圖書館(p. 52)
3) 公共圖書館數	3	18	21	1964年 韓國의 圖書館(p. 10)
4) 研究機關	36	15	51	KORSTIC誌 Vol.2 No.3(p. 25) 및 1964年 職業別 電話番號簿(p. 31)
5) 學會	57	10	67	KORSTIC誌 Vol.2 No.3(p. 25) 및 1964年 職業別 電話番號簿(p. 31)

合計						
B 企業體分野別	서울	地方	計	備	考	
化 工	133	129	262	1964年全國會社名鑑		
製 藥	76	30	106	(서울商工會議所刊行)		
機 紡 工	66	70	136	1963年全國企業體		
織	42	84	126	總覽(서울商工會議所刊行)		
紙	32	25	57	1963年全國中小企業組合員名簿 및 1964年		
食 品	30	50	80	職業別電話番號簿等		
電 氣	26	15	41	에서 다음과 같은 基準으로 선정했다		
金 貨	18	17	35	1) 設立年度 오래된 것		
液 化	11	21	32	2) 生產品別		
鐵 董	11	56	67	3) 資本金百萬원 以 上		
土 木	9	25	34	4) 表示된 技師數		
其 他	22	13	35	5) 分野別		
計	476	531	1,011			

위의 A.B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할 수

있다.

A에 있어서 總對象處 255個中 將次 KORSTIC을 利用할 個處數를 50%로 보면 約 127個處가 算出된다.

다음 B에서는 1,011個處 中 KORSTIC 利用可能 個處率을 30%로 보면 約 300個處가 算出된다. (여기에서 A의 50%와 B의 30%는 經驗에서 얻은 大略的인 率이다).

以外에도 現在 KORSTIC을 利用하고 있는 個處數 220個處 따라서 KORSTIC 利用可能處數의 總計는 647個處(A.127+B.300+現22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情報需要市場은 決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今年度에는 期하기 어렵겠으나 1966年度에 萬一에 1964年度의 一個處當 21.8件의 複寫提供件數가 維持된다면 總複寫 提供件數는 約 14,000件(C47個處×21.8件)程度가 되지 않을까 期待를 걸어 봄 직하다.

以上을 綜合할 때 KORSTIC의 情報提供의 展望은 퍽으나 樂觀視된다. 그러나 受動的인 情報活動은 그 밝은 展望을 決코 現實化 할 수 없다. 近代經營이 需要增加를 為하여 積極的인 P.R.을 極히 重視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附記하여 둘다.

(筆者 業務部長 在職時 本稿 脫稿)

(P. 23에서 繼續)

보다 훨씬 늦게 出願하고, 公告까지 되자면 2~3년이 지나다. 가장 迅速히 特許情報 를 얻으려면 歐洲것이 좋다. 그 理由는 無審查制度인 佛蘭西가 出願後 1年程度, 審查國인 獨逸이 出願後 6個月 程度, 英國이 1年內外로 公告되는 까닭이다. 美國은 出願件數도 많고 公告되자까지 이 期間이 歐州 各國에 比하여 늦으나 重要한 發明이 많다.

特許出願은 特殊한 學者의 發表를 除外하고는, 一般技術文獻의 發表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들을 恒時 監視하고正確하게 把握하는 일은 틀림없이 世界에서 가장 새로운 技術情報 를 얻는 길이 된다.

惟와 같은 理由로 業務 開始한지 2年밖에 아니되는 當KORSTIC에 있어서도 外國特許에 關한 複寫依賴申請이 날로 激增하고 있음은 當然한 現象인 同時に 豐資스러운 일이라 하겠지만 隣近 日本特許는 10餘年分을 所藏하고 있으나 앞에서 論及한 歐洲地域特許는豫算關係로 具備치 못하고 있고, 美國特許와 日本特許로 之 遷報를 내고 있는 形便이다. 이러한 狀態下에서라도 十二分 KORSTIC을 活用하여 韓國의 企業과 研究機關에 實效가 있을 것을 期待하므로 KORSTIC 全體에 努力를 잊고 일하고 있다.

(P. 1에서 繼續)

속(銹)쓰러 가고 이그리져 가서 우리의 三大目標니 近代化課題니 自立經濟니 等은 虛無한 科學技術의 基盤의 外面에서 空轉하여 畸型兒가 될 狀態에 있다. 科學技術의 研究는 奢侈스러운 華麗한 設定을 要求하지 않는다.

「에디슨」같은 한 사람의 科學者의 頭腦에 依하여 여러 사람의 富와 여러 國家의 富를 만든 例가 歷史上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優秀한 頭腦의 所有者가 많이 科學技術에 興味와 意慾을 갖도록 科學技術者의 待遇와 研究條件(研究機關, 科學技術情報센터, 研究豫算等)을 잘 만들어 준다는 것은 科學技術振興策에서 가장 重要한 일인 同時에 이것이 自立經濟를 為始한 우리의 當面한 모든 目標를 達成하는데 있어서의 先行條件이 된다는 切實한 認識을 為政者가 갖는다는 것은 또 그에 앞서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